

[호주 주류 인사 초청 만찬 인사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호주에서 오늘과 같은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토미 버크 호주 연방 다문화장관님과 빅토 도미넬로 주 다문화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혀 낯설지 않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또는 몇 백 년 전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시작이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과 소중함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출가 수행자인 제가 믿고 따르는 종교적 가르침은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호주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해 하룻밤을 꼬박 새워 무려 13시간을 날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13시간은 우리에게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온 시간,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 이 우주의 시간들 속에서 하룻밤은 그저 잠깐의 호흡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3년 전 한반도에 전쟁의 비극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그 멀고 먼 길을 달려와 주었습니다.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전쟁터에서 기꺼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멀고 먼 나라의 고통을 나눠지고자 했던 그 분들의 심경을 어찌 간단한 말과 글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마움을 어찌 잠깐의 인사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날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과 그 가족, 호주 정부와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분들의 기도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호주에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조화의 멋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라고 하여 배타적이지도 않고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1700년의 한국불교 역사가 숨

쉬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로 상징되는 한국 전통 문화의 지혜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소통과 화합, 조화와 상생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전통 문화의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호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집과 거리에 등을 밝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올 5월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의 거리를 오색 연등이 수놓는 장관을 연출하였습니다. 이것을 ‘연등회’라고 합니다. ‘등’을 밝히는 이유는, 나만을 생각하는 독단과 집착 등의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계를 중도 연기의 지혜로 밝게 비추어 자비로운 광명의 세계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찰 음식’ 또한 한국불교가 간직한 전통 문화의 상징입니다. 음식이 내게 올 때까지의 수많은 사람의 노고를 헤아리고, 몸을 유지할 정도의 적당한 양을 먹고, 아주 작은 음식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것이 사찰 음식의 정신이고 자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지켜야 할 지혜로운 음식 문화인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을 함께 느끼기 위해 한국의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숲 속 산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참선·절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참 나’를 찾는 시간, 세상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계기와 기쁨을 찾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다른 나라이지만 같은 하늘과 바다, 같은 공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평화로우며, 모든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도 멸한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는 실체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곧 하나임을 알아 자비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종과 지역, 종교와 문화, 이념과 경제력 등은 서로가 이해해야 할 다양성의 아름다움일 뿐이지 결코 차별과 갈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평화로운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참 나’에 대해 되돌아보고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여 조화와 상생, 평화와 협력의 지혜를 전통의 가치 속에서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